러시아의 제2태평양함대와 방첩작전(1904-1905)

崔 憙 圭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1. 서 론
2. 러시아의 해군정책과 태평양함대
3. 러일전쟁과 제2태평양함대의 편성
4. 제2태평양함대의 극동파견과 방첩작전
5. 결 론

1. 서 론

러일전쟁은 해전으로 시작되어 해전으로 끝났다. 제물포해전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쓰시마 해전에서 러시아의 제2태평양함대[1]가 전멸함으로써 러시

1) 제2태평양함대(Вторая эскадра флота Тихого океана)는 1904년 4월 17일 러시아 총제독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대공의 명령으로 발트함대와 흑해함대로 편성된 함대에 붙여진 공식 명칭이다. 대공의 명령에 따라 당시 극동해역에 위치하고 있던 전함들은 제1태평양

아의 패전으로 종식되었다. 이는 러일전쟁의 주요 원인이 태평양의 제해권 장악을 둘러싼 양국간의 건함경쟁에서 비롯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건함경쟁의 중심에는 태평양에서 해양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으로 인식한 러시아 황제 니꼴라이 2세의 태평양함대 증강정책과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저지하고 대륙침략을 도모한 일본의 군비증강정책이 있었다.

니꼴라이 2세가 국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건함사업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짜르체제에 자본주의를 결합시킨 러시아 산업화정책의 구조적인 모순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 말부터 본격화된 러시아의 산업화는 짜르체제의 유지를 근간으로 한 바, 전제적 정치질서에 자본주의를 접목시킨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이는 국가주도의 경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매우 효율적이었으나 동시에 짜르 및 그의 측근들이 재무성의 소관이던 산업화정책에 개입, 간섭할 여지를 남겨 두고 있었다. 국가주도의 산업화정책은 후진 러시아와 선진 유럽열강간의 경제적 격차를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개발방식이었으나, 이와 동시에 산업화의 진척은 정치체제의 변화를 촉발시킬 수 있음을 우려한 짜르와 황실측근들에 의해 개혁적인 경제정책들이 변질, 왜곡될 가능성 또한 상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짜르를 비롯한 황실측근들은 자국의 산업화정책을 민간경제의 활성화보다는 그들의 전통적 이해와 맞물려 있는 군비증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산업화정책의 주도권을 장악할 경우, 대내적으로는 군사력 증강을 위한 군수산업의 발전방안이 모색될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전력증강사업을 배경으로한 보다 적극적이고 모험적인 외교정책이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이었다.

함대로 명명되었고, 발트해에서 출항준비를 하던 함대를 제2태평양함대로 명명하게 되었다. 그리고 4월 19일 짜르는 제1태평양함대의 사령관으로 해군 중장 베조브라조프 제독을, 제2태평양함대 사령관으로 로제스트벤스키 제독을 임명하였다(Грибович В.Ю, Познохирев В.П., *Вице-адмирал З.П.Рожественский*, СПб., 1999. С.158-159). 우리 학계에서는 이를 통상적으로 '발틱함대'라 칭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명칭이다.

제2태평양함대의 극동파견은 태평양의 제독으로 부상하고자한 짜르 개인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러시아의 모든 해군력을 동아시아에 집결시킨다는 니꼴라이 2세의 동아시아정책의 산물이었다. 이 정책에 내포된 모험주의 성격은, 만일 니꼴라이 2세가 진정으로 태평양의 제해권 확보를 자신에게 부여된 역사적 사명으로 확고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면, 러일전쟁에서 전멸하다시피한 태평양함대의 재건을 위해서라도 재차 태평양함대 증강정책에 매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러일전쟁 직후 그는 동아시아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고 말았던 사실이 이를 반증해 주고 있다.

본 논문은 러시아 역사상 최초로 시도된 태평양함대 증강정책이 제2태평양함대의 파멸을 통해 좌절되는 과정을 러시아의 해군정책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① 러시아의 해군정책의 무게 중심이 발트해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하는 배경을 살펴보고, ② 러일전쟁의 발발 이후 제2태평양함대를 구성하여 극동으로 파견하는 과정을 검토하고, ③ 제2태평양함대가 극동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방해공작을 극복하고 목적지에 안전하게 순항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펼쳐진 러시아의 방첩작전을 구명해 보고자 한다. 러일전쟁 당시 전 세계를 무대로 펼쳐진 러시아의 방첩작전은 발트 및 흑해함대에 편제된 다양한 전함 및 수송선들로 구성된 제2태평양함대가 중립국가와 적성국가 해역을 거쳐 성공적으로 동아시아까지 도달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따라서 러시아의 제2태평양함대와 방첩작전에 대한 연구는 우리 학계에서 연구가 미진한 러일전쟁사의 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러시아의 해군정책과 태평양함대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의 제2태평양함대의 극동파견 결정이 이루어진 배

경에는 1895년부터 짜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태평양함대 증강사업이 있었다. 러시아는 그 지리적 특성상 발트해, 흑해, 태평양에 각각 독립된 개별 함대를 보유해야만 하였으나, 재정 부족으로 니꼴라이 2세가 등극하여 동아시아정책이 적극화되기 이전까지의 건함사업은 주로 발트 및 흑해 함대 건설에 집중되어 있었다. 1826년 2월 22일 니꼴라이 1세의 칙령으로 유럽에서 영국, 프랑스에 이어 유럽에서 제3위의 해군력을 유지하려는 목표를 상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끄르임 전쟁(1853-6)에서 영불연합군에 의해 패배한 결과, 발트함대를 상실하고 흑해에서 함대의 보유권마저 박탈당하는 수모를 당한 바, 니꼴라이 2세의 아버지 알렉산드르 3세(1880-1894)는 발트함대의 확대개편과 흑해함대의 복원에 그 초점을 맞춘 건함사업에 착수하였다.[2] 1881년 10월 5일, 알렉산드르 3세의 재가로 확정된 20개년 건함계획(1883-1902)에 따르면, 발트함대는 장갑순양함을 포함하여 총 191척으로 편성될 예정이었으며, 흑해함대는 총 31척 그리고 시베리아선단은 기존의 6척의 소형 수뢰정을 포함하여 총 21척의 소형 함단으로 새롭게 발족할 예정이었다. 태평양함대가 아닌 소규모의 시베리아 선단을 유지한다는 방침은 엄청난 건조비용이 소요되는 대형 순양함을 동아시아에까지 배치시킬 수 없는 국가 재정형편을 고려한 결과였던 바, 그 보완책으로 태평양 연안의 방위를 위해 시베리아선단을 태평양함대로 확대 개편하기보다는 블라디보스톡항의 설비를 확장하여 유사시, 발트 및 흑해함대가 극동으로 파견될 경우를 대비하는 전략이 추가로 수립되었다.[3] 따라서 알렉산드르 3세 치하의 건함정책은 태평양보다는 발트 및 흑해함대의 증강에 보다 큰 비중이 두어졌으며, 이는 니꼴라이 2세가 짜르직을 계승할 때까지 러시아 해군정책의 기조를 이루었다.

---

2) 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Военно-Морской Флот(이하 РГАВМФ로 약함) Ф. 417. Оп. 1. Д. 695. Л. 4-8 : Памятная записка генерал-адмирала вел.кн. Алексея Александровича, 7 мая 1890 г.

3) Там же. Л. 9-17об.

니꼴라이 2세가 기존의 노선에서 탈피하여 태평양함대 증강정책으로 선회한 주요 원인으로는 청일전쟁으로 야기된 극동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동아시아 진출론자인 알렉산드르 미하일로비치(Вел.кн Александр Михай лович) 대공이[4] 짜르의 최측근으로 등장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895년 러시아의 주도로 이루어진 3국간섭(러·독·불)으로 인해 청일전쟁의 전리품인 요동반도의 할양계획이 좌절되자, 일본 정부는 러시아를 겨냥하여 10개년 군비확장사업에 착수하였고 러시아 해군성 역시 알렉산드르 미하일로비치 대공을 정점으로 향후 러·일간의 군사적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태평양함대의 증강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던 동아시아 진출론자들이 득세하게 되었던 것이다.

시베리아 함단 수준에 머물고 있던 극동에서의 러시아 해군력을 태평양함대로 격상시켜야 할 당위성이 공식 제기된 시점은 일본의 승전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열린 제2차 동아시아문제 특별회의(1895년 2월 1일)였다. 이날 회의의 논의의 초점이 되었던 기르스(Гирс М.Н.) 외상의 정책건의서에는 일본의 승전에 대비한 러시아의 행동지침이 제시되었던 바, 첫째, "만일 청일간의 종전협상시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이해가 손상 받을 경우, 러시아는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고 브로우톤 해협(대한해협-필자)의 자유항행을 보장받기 위해 상기 해협의 입구에 위치한 한반도 남단의 도서 가운데 일항구를, 예를 들어 거제도, 반드시 점령해야 하며 둘째, 그 곳에 영국의 홍콩기지와 유사한 러시아의 조차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그 골자였다.[5] 따라서 회의 참석자들은 일본이라는 새로운 강국의 출현에 대비하여 유럽 열강과의 외교협력이 시급하며 동아시아에서 자국 해군력의 증강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에 첫째, "러시아 태평양함대를 가능한한

4) 니꼴라이 1세의 손자인 알렉산드르 미하일로비치 대공(1866년생)은 1894년 니꼴라이 2세의 여동생 크세니아 알렉산드로브나(вел.кн. Ксения Александровна. 1875년생)와 결혼함으로써 짜르의 제부가 되었다.

5) Красный архив. 1933. Т. 3(52). С. 67-74 : Журнал Особого совещания(1 февраля) 20 января 1895 г.

일본의 그것보다 우세한 규모로 증강시키며 이에 필요한 자금할당 문제를 재상과 협의할 것을 해상에게 권고하고 둘째, 만일 일본정부가 청국과의 강화교섭시 러시아의 이해를 심대하게 손상시킬 경우, 일본에 대한 공동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영국 및 유럽열강, 우선적으로 프랑스와 교섭에 착수할 권한을 외상에게 부여"하기로 결의하였다.

제2차 특별회의의 결의사항에 따라 1895년 4월 3일 러시아 해군성에서는 태평양함대 증강 5개년계획의 심의를 위한 회의가 소집되었다.[6] 이날 회의의 결론으로 채택된 니꼴라이 2세의 해군정책 보좌관 로멘(Н.Н.Ломен) 제독의 정책건의서는 향후 러시아의 태평양함대 증강정책이 보다 적극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흑해, 발트해, 그리고 태평양에서 러시아 해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이 보고서에서 제독은 "흑해에 있어 러시아는 1881년의 건함계획에 의해 터키함대를 능가하는 전력을 보유한다는 과제를 달성했으나, 발트해의 경우 최강의 함대를 보유하고자한 우리의 계획은 달성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1890년부터 독일함대에 현저한 열세를 노정시켰고 1900년까지 이를 만회하지 못할 것"이라 견해를 개진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최강의 발트함대 보유라는 과제는 포기해야 하며, 대독전의 결과는 항상 지상군의 활약에 좌우될 것이기 때문에 함대의 역할은 단지 부차적인 의미에 지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7] 반면 태평양의 경우, 청일전쟁을 통하여 이 지역의 새로운 강국으로 등장한 일본의 위협으로부터 원동지역의 영토를 보호하는 동시에 이 지역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태평양함대의 전력증강 조치가 모색되어야 할 것인 바, 발트함대의 주력전함들을 태평양으로 이동배치하자는 방책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그는 "청일전쟁을 통해 드러난 일본의 가공할 만한 군사력과 육상에서 거둔 그들의 눈부신 전과 모두가 성공적인 해군의

6) РГАВМФ. Ф. 417. Оп. 1. Д. 1467. Л. 27-38об. : Журнал совещания по вопросу об установлении судостроительного плана на пятилетие с 1896 по 1900 г.

7) Там же. Л. 37об.-38.

활약에 기인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볼 경우, 태평양함대의 전력을 일본의 그것보다 월등한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동아시아에서의 방위력 향상을 위해서는 건조가 완료되었거나 건조중인 모든 전함들을 동아시아로 배치해야만 한다"고 역설하였던 것이다.[8] 로멘 제독이 니꼴라이 2세의 해군정책 보좌관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향후 러시아 해군정책은 발트해의 제해권확보를 위한 독일과의 경쟁보다는 일본을 주적으로 삼아 태평양의 해양강국으로 등장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질 것이 분명해졌다.[9] 따라서 러일전쟁 당시 발트함대를 극동으로 파견한 정책은 이미 청일전쟁 시기에 결정된 사안이었다고 할 수 있다.

태평양함대 증강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재정지원의 당위성은 1896년 대공이 작성한 '태평양상에서의 러시아 함대 증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정책건의서[10]에 잘 나타나 있었다. 해군문제 전문가를 자처하던 대공의 의견에 따르면, 뾰뜨르(Петр Ⅰ) 대제와 에까쩨리나 여제(Екатерина Ⅱ)가 발트해와 흑해로의 출구를 획득함으로써 러시아를 유럽세계와 긴밀히 연계시켰던 것처럼 니꼴라이 2세 또한 시베리아를 유럽 러시아와 밀접히 결부시켜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全 시베리아, 특히 동부 시베리아의 경제활동 및 통상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첫째, 일본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가장 위험한 적국인 영국이 획책하는 연해주에 대한 영토침해 기

8) Там же.

9) Там же. Л. 39-43 : Записка Генерал-адмирала вел.кн. Алексея Александровича, 12 июня 1895 г. : 태평양함대 증강계획은 해군성예산의 증액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었다. 1895년 5,500만 루블의 일반예산을 배정받은 해군성은 1895년 7월 24일 1896년부터 1902년까지 향후 7년간 매년 700만 루블의 추가예산의 할당을 요청하는 상주서를 제출하고 짜르의 재가를 받았다

10) Там же. Ф. 763. Оп. 1. Д. 41. Л. 1-35. Записка вел. кн. Александра Михайловича "Соображения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усилить состав русского флота в Тихом океане", С-Петербург, 1896 г. 이 정책건의서의 인쇄본은 러시아 역사문서보관소(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이하 РГИА로 약함)에도 소장되어 있음 : РГИА. Ф. 560. Оп. 22. Д. 201. Л. 2-52.

도를 차단해야 하며 둘째, 대양으로의 자유로운 출구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공은 러시아 태평양함대의 원대한 사명은 바로 시베리아를 대양과 연계시키고 이 지역에 대한 영·일의 접근을 차단하는데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태평양함대의 증강을 위한 건함계획뿐만 아니라 함포 및 수뢰의 교체작업 역시 1904년까지 완료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던 바, 이는 일본의 건함 10개년계획이 1906년에 완료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대공이 재상에게 "이미 확정된 해군의 일반예산 이외에 1904년까지 매년 430만 루블의 추가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아가 자신의 정책건의서의 결론으로서 "동시베리아 개발과 적국으로부터 이곳을 보호한다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러시아 재정에 막대한 금전적인 희생을 치를 수도 있겠지만, 강력한 함대 유지와 블라디보스톡을 일급 항구로 만들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결코 아까와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11] 이와 더불어 대공은 발트함대의 역할은 수뢰를 이용한 연안 방위에 치중하는 방어중심적인 성격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러시아 해군전략의 중심축을 발트해에서 태평양으로 이동시키고자 하였다. 짜르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대공의 태평양함대 증강론은 발트함대 우선론자인 해상 치하쳬프(Н.М.Чихачев)와 함대증강보다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이동되는 육군력에 의존하여 대일방어에 주력해야 할 것임을 주장한 재상 비떼와의 정책대립을 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05년까지 러시아 해군정책의 기조를 이루게 되었다. 그 결과 러시아의 주적은 일본이 아니라 오히려 독일이며, 수뢰를 이용한 해안방위계획 역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대독전에서 발트해의 제해권을 상실할 경우 적군의 상륙을 허용함으로써 지상군 작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반박했던 해상 치하쳬프는 그해 가을 티르토프(П.П.Тыртов) 제독으로 전격 경질되고 말았다.[12]

---

11) Там же.

12) *Петров М.А.* Подготовка России к мировой вой не на море. М.; Л. 1926. С. 47.

또한 태평양함대 증강사업에 대한 재상 비떼의 반박논리 역시 짜르에 의해 수용될 수 없었다. 비떼의 견해에 따르면, 방위비 지출의 증대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국민경제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열강과의 군비경쟁을 야기시킴으로써 정부의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것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첫째, 방위비 지출은 전적으로 국가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동시에 이를 충당하기 위한 새로운 세수의 확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지출들은 인민들의 납세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세입의 증대에도 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이며 둘째, 군대의 증원은 다수의 노동자를 생산현장으로부터 이탈시키며 방위비 지출을 증대시켜 여타 부서에 배정된 자금을 삭감시킨다. 이는 국가의 문화발전에 배정된 예산집행을 보류시킬 것이며, 세수증대를 통해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지속적인 자금지원을 담당하고 있던 정부역할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13] 셋째, 매년 끊임없이 증가하는 막대한 방위비 지출은 가까운 시일 내에 복구되기 힘들 것이며, 아직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러시아의 인민과 기업가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며 그리고 넷째, 러시아가 동아시아에서 군사력을 증강하면 할수록 영국, 일본 혹은 여타 열강이 이곳에서의 자국의 전력을 보다 급속히 증대시킬 것임이 분명하다는 것이 그 요지였다.[14]

그러나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운 재상의 반대 역시 짜르의 건함사업을 중단시킬 명분이 되지는 못하였다. 1901년 3월 2일, 군함 건조단가와 석탄가격의 상승으로 추가적인 재무성의 자금지원 없이는 태평양함대 증강을 위한 건함계획을 축소시킬 수 밖에 없다는 해군성의 상주서에 대해 니꼴라이 2세는 건함사업에 대한 기본입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① 어떠한 이유로도 건함사업

13) РГИА. Ф. 560. Оп. 22. Д. 215. Л. 2-5 : Объяснение министра финансов Комитету министров по поводу заявл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контролера о напряжении платежных сил населения.

14) Красный архив. Т. 18, 1926. С. 22-25. Письмо Витте Муравьеву, 10 фев. 1900 г.

은 축소될 수 없으며, ② 유럽 및 근동과 극동에서의 러시아의 정치적 과제와 인접국의 건함계획을 고려하여 향후 20년간 자국함대를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제출하고, ③ 이에 상응하는 20개년 건함계획을 입안하며, ④ 이 계획에 따라 발주될 모든 전함은 반드시 러시아의 국영 및 민간조선소에서 건조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15]

짜르의 이 같은 결정은 단순히 군비증강사업에 반대한 재상 비떼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이는 1898년 말부터 유럽 금융시장에서 자금경색 국면이 본격화됨에 따라, 유럽 차관에 의존하고 있던 비떼 주도의 산업화정책이 일대 난관에 봉착하게 되자, 그 대안으로 제시된 정부발주에 의한 국내 경기활성화 대책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영국 증시의 침체와 미국의 금본위제 도입에 따라 대규모의 유럽자본이 미국으로 유출되면서 발생한 유럽 금융시장의 자금경색과 주요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은 서방자본에 의존한 재무성의 경제정책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국내 경기불황을 초래하였다.[16] 이에 철도와 더불어 고부가가치 산업이었던 국내 조선산업을 지원육성하고 철강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총 규모 15억 루블의 20개년 건함사업이 계획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17]

동아시아정책의 강력한 추진수단이자 국내 산업발전의 활력소가 될 20개년 건함계획은 1902년 11월 24일 짜르가 재무성 산하의 통상해운위원회를 분리 독립시켜 알렉산드르 미하일로비치 대공을 청장으로 하는 해운항만청으로 승격시키면서 보다 구체화되었다.[18] 더욱이 니꼴라이 2세는 자신의

---

15) РГАВМФ. Ф. 417. Оп. 1 Д. 695. Л. 2-3об.: Доклад по главному морскому штаву, 19 фев. 1901 г.

16) *Романов Б.А. Ананьич Б.В.* Попытки С.Ю.Витте открыть американский денежный рынок для русских зай мов(1898-1902 гг.)// 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 1959. No. 1. С. 126-127.

17) *Петров М.А.* Подготовка России к мировой вой не на море. М.; Л. 1926. С. 51-52.

18) РГИА. Ф. 1241. Оп. 16. Д. 1. Л. 18: Справка о приобратении Главным управлением Торгового Мореплавания и Портов акций Рижского Судостроительного завода "Ланге и Сын".

정책비서 아바자(А.М.Абаза) 제독을 이 부서의 부청장으로 임명함으로써 건함사업과 조선산업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19] 짜르의 이 같은 조직개편은 재상의 극동 시찰기간에 단행된 바, "유럽에서 빌린 차관의 이자를 아시아 무역으로부터 얻은 수익으로 갚는다"[20]는 명분하에 동아시아 정책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던 비떼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동시에, 향후 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을 자신의 주도하에 건함사업에 기반한 군비 증강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포석이기도 하였다. 이 같은 짜르의 의지는 1902년 10월 28일, 해상 띠르또프(П.П.Тыртов)가 올린 상주서에 "건함사업은 국가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넣지 않는 한,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결재를 함으로써 재천명되었다.[21] 제2차 20개년건함계획(1903-1922)의 최종안 선정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국영 및 여타 조선소로부터의 대량실업 사태를 야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함 증강사업에 대한 짜르의 명령을 정해진 기간내에 완수하기 힘들다는 해상의 보고에 대해 니꼴라이 2세는 일단 2개년(1903-1904) 건함계획에 쓰일 자금 5,000만 루블을 즉각 해군성에 배정할 것을 재무성에 지시한 것도 태평양상에서 해양강국으로 부상하려는 그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었다.[22] 건함사업에 대한 짜르의 일관된 의지표명은 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뿐만 아니라 태평양함대 증강사업에 더욱 힘을 실어주게 되었던 것이다.

---

19) *Витте С.Ю.* Воспоминия. М., 1960. Т. 2. С. 235.

20)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доклад министра финансов С.Ю.Витте Николаю II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установить и затем непреложно придерживаться определ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ой политики империи, 1899 г., не позднее февраля//Материалы по истории СССР. М., 1959. Т. 6. С. 167-168.

21) РГАВМФ. Ф. 417. Оп. 1. Д. 695. Л. 1-1об. Доклад морск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главному управлению кораблестроения от 28 октября 1902 г.

22) Там же.

3. 러일전쟁과 제2태평양함대의 편성

러일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러시아 당로자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들은 제물포와 여순에 정박중인 자국함대에 대한 일본의 기습공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극동해역으로 러시아함대를 추가 파견할 경우,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개전 직후 러시아 해군성이 입안한 전쟁수행 계획은 일본에 대한 러시아함대의 수적인 우세를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1904년 2월 19일, 러시아 전역에서 모금되고 있는 방위성금에 근거하여 함대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바, 그 의장으로 짜르의 지시에 따라 알렉산드르 미하일로비치 대공이 선임되었다.[23] 이 위원회의 활동범위는 ① 러시아 전역에서 답지하고 있는 방위성금을 접수하고,[24] ② 이 성금의 운영권을 확보하며, ③ 정부소유의 선박을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④ 방위성금으로 건조될 전함의 모델을 선정, 발주하며, ⑤ 발주 전함의 건조과정을 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위성금으로 모금된 전시건함사업의 총책임을 맡은 대공은 조속한 시일 내에 괄목할 만한 함대증강을 이룩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았으나, 전국적인 규모로 답지되고 있는 방위성금의 총액을 예상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성금액수에 상응하는 규모의 건함계획을 수립하기가 매우 곤란했다. 그리고 함대증강의 시급성을 이유로 외국선박을 구입하기로 한 결정 역시, 유럽제국 및 미국이 엄정중립원칙을 고수함에 따라 실패하고

23) РГИА. Ф. 1241. Оп. 16. Д. 1. Л. 92-115 : Годовой отчет 6 февраля 1904-6 февраля 1905 года Высочай ше учрежденного Особого Комитета по усилению военного флота на добровольные пожертвования.

24) 1904년 2월 20일부터 1906년 3월 1일까지 접수된 방위성금의 총 모금액은 약 17,000만 루블(17,191,200р. 88к.)이었다(РГИА. Ф. 1241. Оп. 16. Д. 1. Л. 90 : Ведомость о состоянии сумм Высочай ше учрежденного Особого Комитета по усилению военного флота на добровольные пожертвования).

말았다. 따라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단일모델의 소형수뢰정(500-615톤급) 위주로 모두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함대증강 특위가 주문한 총 18척의 수뢰정 가운데 8척이 해운항만청 소유의 란게(Ланге и Сын) 조선소에 할당된 바, 이는 전함건조 단가책정을 둘러싼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갈등의 소지를 없애는 동시에 최저가로 발주하기 위함이었다.[25]

러시아정부가 제2태평양함대의 편성을 결정한 것은 태평양함대를 지휘하던 마카로프(С.О.Макаров) 제독이 1904년 3월 31일 기뢰 폭발사고로 사망하였다는 보고를 접한 직후였다. 기함 페트로파블롭스크(Петропавловск)호의 침몰과 더불어 사망한 마카로프를 대신하여 1904년 4월 2일 짜르는 흑해함대 사령관 스크릐들로프(Н.И.Скрыдлов) 제독을 임명하였다. 그러나 4월 5일, 짜르에게 상신된 해군성의 보고서에는 위기에 처한 태평양함대를 구원하고 일본해군을 제압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동아시아해역에서 해군력의 증강인 바, 이를 위해 발트해와 흑해의 모든 전함을 총동원해야 할 것을 건의하고 있었다. 따라서 흑해와 발트해의 함정들로 구성된 새로운 함대를 누가 지휘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하마평이 나도는 가운데 4월 12일 아침 짜르는 로제스트벤스키 제독과 장시간의 독대를 가졌다. 그리고 1904년 4월 17일, 러시아 총제독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대공은 발트함대와 흑해함대로 편성된 새로운 함대를 제2태평양함대(Вторая эскадра флота Тихого океана)로 명명할 것을 해군성에 지시했다. 이에 극동해역에 위치하고 있던 전함들은 제1태평양함대로 명명되었고 발트해에서 출항준비를 하던 함대를 제2태평양함대로 명명하게 되었다. 그리고 4월 19일, 짜르는 제1태평양함대의 사령관으로 해군중장 베조브라조프 제독(П.А.Безобразов)을, 제2태평양함대 사령관으로 로제스트벤스키(З.П.Рожественский) 제독을 임명하였다.[26]

---

25) 500톤급 수뢰정 1척의 건조단가는 75만 루블이었던 바, 8척의 건조비로 총 600만 루블에 계약이 되었다.

26) Грибович В.Ю, Познохирев В.П., *Вице-адмирал З.П.Рожественский*, СПб., 1999. С.158-159.

그 결과, 마카로프 제독의 사망 이후 러시아의 해군정책은 로제스트벤스키 제독이 제1태평양함대를 구원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알렉산드르 미하일로비치 대공이 이에 필요한 전함 발주 및 장비지원을 맡기로 업무분담이 이루어졌다.

제2태평양함대의 극동파견은 일차적으로 위기에 처한 제1태평양함대를 구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1함대와 연합하여 동아시아해역에서 제해권을 장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에 유럽에서 극동에 이르는 18,000마일의 항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 함대를 양분하여 일부는 지중해와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며 흘수가 깊은 전함들은 희망봉을 돌아갈 것이고, 이후 프랑스령 마다가스카르의 디에고 수아레스에서 재결합한 후 인도양을 거쳐 극동으로 항진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항로는 1904년 8월 짜르의 재가를 받았다.[27]

그러나 극동에서의 전황이 더욱 불리해지고 제1태평양함대의 전력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제2태평양함대를 극동으로 파견해야할 당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이에 해상 아벨란은 함대의 극동파견문제를 특별회의에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1904년 8월 25일, 짜르의 주재하에 소집된 특별회의에서 논의의 쟁점은 바로 제2태평양함대 파견의 당위성에 관한 문제였다. 이날 회의에는 총제독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대공, 해상 아벨란, 함대강화특위의장 알렉산드르 미하일로비치 대공 그리고 육군상, 재무상, 외무상이 참석하였다. 육군상 사하로프(A.B.Сахаров)와 해군상 아벨란은 제2태평양함대가 극동에 도착할 때까지 여순항과 제1함대가 건재할 수 있을지의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따라서 이들은 제2함대의 극동파견 자체에 대한 재검토를 제의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제안은 이미 극동으로의 항진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로제스트벤스키의 강력한 주장에 밀려 결국 철회되고 말았다. 그리고 해군성은 전력증강 문제가 시

27) Там же. С. 161.

급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칠레와 아르헨티나에서 장갑전함 및 순양함 7척을 구매하여 마다가스카르에서 제2함대와 합류하기로 하였다는 계획을 짜르에게 보고하였다. 결국 제2태평양함대는 예정대로 극동으로 파견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1904년 9월 29~30일 양일간에 걸쳐 짜르는 극동순항에 참가할 전함들을 시찰하기에 이르렀다.

1904년 10월 2일 아침 7시, 제2태평양함대의 제1분견대의 지휘를 맡은 엔크비스트(О.А.Энквист) 제독이 그의 기함 알마즈(Алмаз)호를 타고 리바븨항에서 출발하였다. 제1분견대는 전함 4척(스베틀라나, 젬추그, 드미트리 돈스코이)과 수송선 2척(메테오르, 고르챠코프 공) 수뢰정 2척(블레스쨔쉬, 프로조를리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 시간 뒤, 펠케르잠 제독이 이끄는 제2분견대가 기함 오슬랴바(Осляба)호를 선두로 출항했다. 제2분견대는 전함 4척, 수송선 1척, 수뢰정 2척으로 구성되었다. 9시 30분에 출항한 제3분견대는 이고리예프(Е.Р.Егорьев) 대령의 기함 아브로라(Аврора)호를 선두로 수송선 3척, 쇄빙선 예르마크(Ермарк)호, 수뢰정 2척이 그 뒤를 따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시 정각 로제스트벤스키 제독의 지휘로 제4분견대가 출항하였다. 제4분견대는 기함 수보로프 공(Князь Суворов)호를 비롯한 4척의 신형전함과 수송선 카레야(Корея)호, 견인선 1척, 2척의 수뢰정으로 구성되었다.[28] 이날 리바븨항의 날씨는 발트지역의 전형적인 가을날씨였던 바, 먹구름이 끼어 있었고 안개비가 간간히 내리고 있었다. 안개와 먹구름은 이 함대의 장래를 예견해 주는 듯했다.

한편, 제2태평양함대 사령관 로제스트벤스키 제독이 극동의 제해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출항 채비에 여념이 없을 무렵 러시아 정부는 이미 제3의 태평양함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새로운 태평양함대 건설의 당위성을 설파함으로써 해군성에 건함사업을 위한 추가 예산지원 결정을 이끌어낸 사람은

28) Грибович В.Ю, Познохирев В.П., *Вице-адмирал З.П.Рожественский*, СПб., 1999. С.184-185. 제2태평양함대는 리바븨항에 정박한 3일간 9000명의 승무원을 위한 6,500톤의 석탄과 1,000톤의 식수를 적재하였다.

전직 태평양함대 사령관이자 함대강화특위 위원이었던 두바소프 제독(Ф.В.Дубасов)이었다. 그는 1904년 9월 23일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총제독(Генерал-адмирал Алексей Александрович)에게 보내는 정책건의서에서 일본의 기습공격으로 발발된 이 전쟁에서 새로운 태평양함대의 건설만이 러시아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역설했다. 제독의 견해에 따르면, 새로운 함대를 건설하여 동아시아의 제해권을 확보할 경우 ① 해상보급로를 차단함으로써 일본 육군원정대의 고립뿐만 아니라 전쟁을 국지전화할 수 있으며, ② 자유로운 해상 병참로를 확보한 러시아 해군은 자국 육군의 보급 및 지상작전에 적극 협력할 수 있고, ③ 일본군대를 만주 및 한국에서 축출하여 궁극적으로 한국까지 손쉽게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두바소프 제독은 제해권 확보를 위한 제1보로 마산포 점령을 주장하였는데, 그것은 일본 육군원정대의 후방을 봉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의 해군 전략기지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29] 이 당시 제독은 일본이 패전한다 하더라도 결코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의해 무장해제 당하더라도 조속히 재기할 것임이 틀림없기 때문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일본과의 강화조약이 체결된 후에라도 이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일본해군을 능가하는 강력한 함대를 건설할 적기임을 역설했던 것이다.

이 같은 논거에 기반하여 제독은 강력한 함대건설을 위해 대형전함 위주의 건함사업을(순양함 10척과 구축함 및 수뢰정 각 15척) 제의하기에 이르렀다.[30] 그리고 두바소프가 제의한 강력한 태평양함대 건설계획은 외상 람스도르프(В.Н.Ламздорф)가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러시아 정가에서 점차 설득력을 얻어갔다. 외상의 견해에 따르면, 일본의 패색이 짙어질 경

29) РГИА. Ф. 1622. Оп. 1. Д. 265. Л. 1-11 : Записка вице-адмирала Дубасова с оценкой нашего положения на море и с соображениями о мерах для усилиеня флота, 10 сентября 1904 г.

30) Там же.

우 일본과 동맹관계에 있던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대러 적대행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러일전쟁의 종결 직전까지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람스도르프 역시 군비증강을 위한 대책 마련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는 두바소프의 제안에 적극 동조하고 나섰던 것이다.[31]

그러나 두바소프의 계획은 1904년 12월 16일 재상 꼬콥쪼프(В.Н.Коковцов)가 새로운 함대건설에 반대하는 상주서를 제출하면서 그 실현의 최대 고비를 맞게 되었다. 꼬콥쪼프가 제기한 새로운 함대건설계획의 문제점은 ① 대일전을 치르면서 막대한 전비부담을 안고 있는 러시아 정부가 단순히 예상되는 가상적국인 영국과 미국에 대비한 함대건설을 위해 추가적인 예산지출을 감당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②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정부가 전비지출 부담에서 벗어나는 시점, 즉 러일전쟁이 종료된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③ 국내 조선소의 생산능력은 당분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④ 일본과의 강화조약 체결후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위상정립 문제 역시 군비증강이라는 해법보다는 외교적인 수단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었다.[32] 요컨대 재상은 위력적인 함대건설은 국가재정 형편상 전쟁이 끝난 후에나 가능하며, 강화조약 체결 이후 러시아에 의한 동아시아의 평화는 외교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논거를 제시함으로써 두바소프의 계획을 좌절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꼬콥쵸프의 이 같은 의도는 1905년 1월 4일 총제독에게 전달된 두바소프의 정책건의서에서 통렬하게 반박되었다. 두바소프의 건의서에는 새로운 함대건설을 반대하는 재상의 논리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었다. 제

31) РГИА. Ф. 1622. Оп. 1. Д. 267. Л. 1-13: Записка председателя Морского технического комитета вице-адмирала Ф.В.Дубасова генерал-адмиралу вел. кн. Алексею Александровичу, 22 дек. 1904 г.

32) Там же.

독은 먼저 강력한 태평양함대의 건설시기는 러일전쟁의 종료 이후가 아니라, 전쟁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병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시키고자 했다. 제독의 견해에 따르면, 러일전쟁과 병행하여 강력한 함대를 건설해야 할 당위성은 ① "일본을 패퇴시킨 후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기 위해서이며, ②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영국과 미국이 우리에게 적대행위를 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함대건설을 통해 사전에 그 대비책을 준비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두바소프는 재정난을 내세운 재무상의 반대논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법을 제시했다. 비록 1905년도의 정부예산은 막대한 전비지출을 겨우 감당해 낼 수 있는 규모로 편성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전함건조는 아무리 빨라도 12개월에서 24개월이 소요되는 바, 선박건조 대금 역시 발주후 빨라도 1년 뒤부터 지불될 것이며 일반적으로 선박을 인도 받은 후 최종정산이 이루어지는 관례에 비추어 볼 경우, 선박대금은 적어도 2-3년 후에나 지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발주대금은 1906년과 1907년 예산에서 지출될 것이며 그때쯤이면 러시아의 재정상태 역시 이를 감당 할만큼 호전될 수 있을 것이라 낙관하였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제독은 건함자금의 조달을 위한 또 하나의 방책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외국은행의 신용대출을 이용하자는 것이었다. 제독의 견해에 따르면, 선박건조에 필요한 상당량의 부속품을 외국에 주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미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다음과 같은 대금결제 방식을 조건으로 해외발주를 하자는 것이다. 즉 러시아에게 부담이 덜 되는 시점까지 부품대금의 지불을 연기하며 그 동안 외국 선박회사들이 부품제작을 위해 은행에서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를 갚아 나간다는 조건이 그것이다. 이 경우 러시아는 "현 상황에서 가장 중차대한 사업을 최단시일 내에 끝마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관도입시 예상되는 중개수수료를 물지 않고서도 유리한 재정운용을 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33]

33) Там же.

국내 조선소의 생산능력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자는 재상의 주장에 대해 두바소프는 코꼽쪼프의 의도가 태평양 함대를 현 수준으로 고정시키려는데 있다고 단정하고, 침체에 빠진 국내 조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강력한 함대 건설사업이 최선의 정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승리의 순간을 맛보기 위해서는 국내 조선산업의 수준을 현 단계로 고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건함사업을 위한 시설확충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임을 역설했던 것이다.[34]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과의 강화조약 체결후 러시아가 외교적으로 고립될 경우, 아무리 막강한 군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동아시아에 대한 자국의 이해를 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교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재상의 견해에 대해 두바소프는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여 이를 일축했다. 즉 국제관계의 요체는 국가이익인 바, 모든 국가는 철저한 자국이기주의자들이며 향후 이들을 우리의 동맹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강력한 군사력이 바탕이 되어야지, 외교적인 술책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 골자였다. 이에 그는 "우리가 시급히 함대건설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외부로부터 일체의 원조도 기대할 수 없는 고립상태에 빠질 것이며 어떠한 외교적인 노력도 우리를 고립상태에서 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역설했던 것이다.[35] 따라서 그는 이 함대의 건설은 지체 없이 일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각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36]

이와 같이 뻬쩨르부르그에서는 제2태평양함대의 극동파견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제3의 태평양함대를 편성하기 위한 건함계획이 모색되고 있었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를 대비한 계획들이 마련되고 있었던 것이다. 러시아는 승리의 그날이 올 때까지 건조되는 모든 함정들을 극동으로 파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승전이라는 목적 앞에서는 건함계획에 대한 어떠한

34) Там же.
35) Там же.
36) Там же.

반박논리도 당위성을 찾기 어려웠던 것이다.

4. 제2태평양함대의 극동파견과 러시아의 방첩작전

유럽에서 극동으로 파견되는 제2태평양함대는 중립국과 적성국해역을 통과해야만 하는 바, 이 지역에서 일본의 기습공격과 후방교란 작전을 돌파하여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는 문제가 제2태평양함대의 제1의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함대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측면지원을 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러시아 방첩작전의 핵심이 되었다.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의 정보수집 및 방첩작전은 4개의 기관이 각각 독자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던 바, 총참모부 제2총국, 해군참모부, 외무성 그리고 내무성 경찰국이 그것이다.[37] 총참모부 제2총국 산하 군사통계 부장직에 있던 젤레브롭스키(В.П.Целебровский) 소장은 해외주재 러시아 무관들이 수집한 모든 정보들을 관할하고 있었으며, 해군참모부 부참모장 비레니우스 소장은 해군 무관들의 활동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리고 외무성과 내무성 경찰국에서는 해당부처(외상 : 람스도르프, 경찰국장 : 로푸힌(А.А.Лопухин), 코발렌스키(С. Г.Коваленский), 라치콥스키(П.И.Лачковский)의 수장들이 방첩업무를 직접 챙기고 있었다. 더욱이 수집된 정보 가운데 매우 중요한 사안들은 황제에게 직접 보고되기도 하였다.[38]

---

37) 러시아 방첩기구에 관한 1차사료들은 다음의 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다. 러시아연방문서보관소(ГАРФ)의 경찰국 문서군(Ф. 102) 문서철 316번에는 경찰국 해외요원들의 서신 및 보고서 등의 문서들이 소장되어 있으며 이 문서들은 1992년에 비밀해제가 되었다. 그리고 군역사문서보관소(РГВИА), 해군함대문서보관소(РГАВМФ), 제정러시아대외문서보관소(АВПРИ)에도 군사무관 및 외교관들의 정보보고가 소장되어 있다.

38) Павлов Д.Б. Российская контрразведка в годы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Отечественная

이들 기관간의 명확한 업무분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나 군 첩보기관들은 ① 일본의 러시아에 대한 군사정보 수집활동, ② 일본인들의 무기구매 및 이를 극동으로 수송하는 문제, ③ 서유럽 국가에서 일본이 발주한 무기에 대한 정보, ④ 일본 육·해군의 병력 증감상황과 부대배치에 관한 정보들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반면 외무성과 경찰국에서는 주로 정치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이들 기관의 해외주재원들이 군사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육·해군 무관들에게 이를 전달하는 것을 제지하지는 않았다.

러시아 군방첩 기관요원들의 주요 활동무대가 동아시아에 편중되어 있었던 반면 경찰국 요원들은 대부분 서유럽에서 활동하였다. 극동지역 주재 군사무관들은 북경의 아고로드니크(Ф.Е.Огородник) 대령과 상해의 데시노(К.Н.Дессино) 장군을 주축으로 만주와 요동반도에 주둔하고 있던 러시아군대에 대한 정보수집과 방첩활동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여순에 소재한 극동총독부의 지령을 받고 있었으나 극동총독부가 폐쇄된 직후 만주군 총사령부 휘하에 놓이게 되었다. 반면 중국주재 러시아 외무성 관리들(주청공사 레사르 П.М.Лессар, 영사 : 클레이메노프 К.В.Клей манов, 크리스티 Х.П.Кристи, 라프쩨프 Н.В.Лаптев, 티제만 П.Г.Тидеман 그리고 상해에 주재한 주한공사 파블로프 А.И.Павлов)과 재무성 관리들(러청은행 이사 다비도프 Л.Ф.Давыдов, 주청 상무관 라스포포프 Н.А.Распопов)은 여전히 본국정부의 지휘체계 하에 놓여 있었다.[39] 이는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하고 총괄하는 수상의 직위를 허용하지 않았던 전제적 짜르체제의 후진성이 제정러시아의 방첩조직체계 속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음을 의미했다. 따라서 러시아에서 효율적이고 통합된 정보기관의 등장은 짜르체제의 와해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었다.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 국내 및 해외에서 일본의 첩보활동을 감시하고 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은 핵심기관은 다름 아닌 내무성 경찰국 산하 특수

история, №1, 1996. С 14.

39) Документы/ Сост. И.В.Деревянко //Тай ны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 ны М., 1993. С.142-327.

부였다. 또한 특수부는 몇 개의 특별임무를 지닌 분과들로 세분화되는 바, 즈빈(В.С.Зыбин)과 가르팅(А.М.Гартинг)이 총책임자로 있었던 제4비밀분과와 마나세이비치-마누일로프(И.Ф.Манасевич-Мануйлов)가 주관하던 국제스파이조직 수사과 그리고 헌병중령 트르제쟈크(В.В.Тржецяк)가 지휘하던 헌병방첩대가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관례에 따라 방첩업무에는 지방경찰국과 지역헌병대가 가담하게 되었다.[40]

일본과 러시아간의 첩보전쟁은 이미 러일전쟁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1903년 반정부 비밀단체 조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던 주러 일본무관 아카시 대령에 대한 비밀감시 체제는 일본공사관 소속 무관들과 러시아 헌병장교간의 비밀접촉 사실을 적발할 수 있었다. 러시아 병참참모부 소속 헌병대위 이프코프(Н.К.Ивков)는 일본무관인 타노 대위와 아카시와 접촉하여 유럽주둔 러시아군대의 극동 이동경로에 대한 정보와 소요시간 그리고 30만의 군대를 이동하는데 필요한 제반정보를 아카시에게 전달하였던 것이다. 그 대가로 아카시는 1904년 12월부터 1905년 1월까지 약 2,000 루블을 지불하였으나, 1905년 2월 이 사실은 러시아 군방첩부대에 포착되어 이프코프와 일본무관간의 커넥션은 일망타진되었다.

러일전쟁 직후 1904년 2월, 러시아 경찰국장은 뻬쩨르부르그 거주 모든 일본인에 대한 비밀감시에 착수하였고 원동지역에서는 이미 1904년 1월 말부터 이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일본인들에 대한 엄격한 감시가 이루어졌다. 러시아 자바이칼 지역 군무지사 나다로프(И.П.Надаров)는 경찰국장과 극동총독 알렉세예프의 요청에 따라 시베리아 철도 인근지역에 일본인의 거주를 금지시켰으며, 이르쿠츠크 지역에서 일본인들을 강제추방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동양인에 대한 감시망은 1904년 7월부터 주러 외국공관원들, 특히 외국 군사무관에 대한 감시로 확대되었다. 6월초 내무상 로푸힌의 지시로 경찰국 특수부 산하에 국제간첩단 색출을 위한 특수분과가 설치되었고

40) Павлов Д.Б. Российская контрразведка в годы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Отечественная история, №1, 1996. С. 15.

그 책임자로 마나세예비치-마누일로프가 임명되었다. 이 부서는 명확한 복무규정이나 정부예산 그리고 문서전달체계가 없는 임시적인 기구였으며 마누일로프를 정점으로 헌병대위 코미사로프, 암호해독관 크리보슈, 일단의 형사와 주러 외국공관에서 일하는 러시아인 정보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에 마누일로프는 1904년 7~8월 일본뿐만 아니라 스웨덴, 이탈리아, 영국, 미국의 무관들의 서신을 검열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스웨덴 무관 크라크와 러시아 발트조선소에서 잠수함 건조공정을 감리하고 있던 미국인 버그간의 잦은 만남이 포착되었다. 이에 크라크의 본국보고서를 검열한 결과 비밀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음이 밝혀졌고 그 정보원은 바로 버그였음이 드러났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비록 미국인 버그가 러시아 해군의 전함건조와 함포설비를 주도하던 알렉산드르 미하일로비치 대공과 각별한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추방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41]

1904년 8월말 마누일로프는 미국대사관의 암호전문을 검열할 수 있었으며 9월 초부터는 중국, 스웨덴 그리고 일본의 암호전문 일부를 해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0월에 이르러 주러 청국공관의 거의 모든 암호를 해독하게 됨으로써, 뻬쩨르부르그를 통해 서유럽 주재 청국공관으로 전달되던 청국외무성의 외교전문들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

마누일로프가 이 같은 성공적인 방첩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러시아 경찰청은 오데사 주재 일본영사 이지마의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아카시와 더불어 개전 직후 러시아를 떠나 비엔나에 거점을 확보한 후, 이곳을 러시아의 하리코프, 르보프 그리고 오데사를 연결하는 일본첩보망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였다. 1904년 5월, 러시아 경찰청은 오데사 주재 일본영사관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현지에 남아 있던 일본인 도카시가 비엔나로 보내는 보고서 일부를 검열하는데 성공하였다. 특히 6~7월에 러시아 경찰청이 검열한 다카시의 보고서에는 러시아육군의 동원과 이동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발트함대와 흑해함대에 대한 일본인들의 불순한 기도를 획책

41) РГАВМФ. Ф. 417. Оп. 1. Д. 3128. Л. 12 : Письмо Берг А.А.Вирениусу 2 сентября 1904 г.

하는 정보가 담겨져 있었다.[42] 이는 제2태평양함대의 출항을 준비하던 러시아에게는 일대 경종을 울리는 정보였으며, 러시아 방첩활동의 무게 중심이 해외로 이동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904년 여름 중반부터 러시아의 방첩망은 확고하게 정비되기 시작되었으며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도 보다 확고해졌다.

이미 1904년 4월부터 일본인들이 발트해와 흑해의 주요 항구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극동으로 이동하는 제2태평양함대의 항로를 따라 교란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들이 입수됨에 따라, 이제 러시아의 방첩활동은 극동의 전황과 밀접하게 맞물리기 시작했다. 개전 초기 일본의 기습공격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러시아의 태평양함대를 증강시키기 위해 짜르 니꼴라이 2세는 1904년 4월 제2태평양함대의 극동파견을 결정하였고, 이를 통해 전황을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함대의 이동경로가 극비에 부쳐져 있었지만, 지도를 펼쳐놓을 경우, 일본의 기습공격 가능지점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발트함대의 경우 발트해협(대·소 벨트, 준트, 카테가트)이 이에 해당되며, 흑해함대의 경우는 보스포러스 및 다다넬스 해협 또는 수에즈운하가 바로 그 곳이었다.

제2태평양함대에 대한 기습공격 가능성에 관한 정보는 외교, 군사 및 경찰의 정보채널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고되고 있었다. 1904년 4~6월 홍콩, 상해, 파리, 코펜하겐 주재 첩보원들로부터 일본이 후방을 교란하기 위한 비밀요원들을 발트해와 흑해지역으로 급파하였고 유럽 북부, 홍해 그리고 인도양에서 제2함대를 공격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함 및 무선통신망 및 기타 장비를 구입하였다는 정보가 속속 입수되고 있었다. 이들 정보보고에는 일본군 장교의 직급 및 병과 심지어 이름까지 거명되었고, 로제스트벤스키 함대를 추적하기 위한 일본선박의 활동방식에 대해서도 언

42) Павлов Д.Б. Российская контрразведка в годы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Отечественная история, №1, 1996. С. 17. 도카시는 1904년 7월 31일 체포되어 미국영사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국외추방되었다.

급되어 있었다. 이 정보보고들은 세부적으로 사실과 다른 경우는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러시아 경찰청이 일본측 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신빙성 있는 자료들이었다.

이 보고들은 러시아 방첩기관들이 프랑스와 수립한 정보공조체제를 통해 재확인되었다. 1904년 8월 3일, 경찰청장 로푸힌은 부내무상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프랑스와의 정보공조에 대해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경찰청은 러일전쟁 개전 직후 특임관 마누일로프를 통해 서유럽국가에 주재하는 일본 외교공관원들에 대한 감시체제를 수립하고자 하였으며, 1904년 2월 프랑스 비밀경찰국장과 내무부 정보국장의 지원하에 파리주재 일본공사관의 모든 전문들을 복사할 수 있었으며, 마누일로프는 일본공사관에 근무하는 프랑스 정보원을 통해 정기적으로 상당량의 공문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누일로프는 프랑스 경찰의 제안에 따라 런던 및 헤이그 주재 일본공관에 소속된 현지인 하인들을 통해 일본인에 대한 감시망을 확대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그 결과 1904년 여름에 이르러 파리 전신국을 통해 확보한 전문들과 일본의 서유럽 공관들에서 획득한 문서들이 200건을 넘게 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이 문서들은 제2태평양함대의 이동을 유럽에서 저지하려한 일본의 의도를 여실히 노정시키고 있었다.[43]

러시아의 해외정보망을 통해 입수된 일본의 기습공격 관련 정보는 제2태평양함대 사령관 로제스트벤스키 제독을 긴장시켰다. 그는 해군참모장 비레니우스 제독에게 보내는 일본의 공격에 대비한 다음의 대처방안을 실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① 지중해에서 우리 함대는 무엇보다도 전투태세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주·야간으로 포탄을 장전한 채 경계업무에 만전을 기하며, ② 흑해함대 사령관 추힌(Г.П.Чухин)과 발트함대 사령관 비릴료프(А.А.Бирилев)에게 흑해와 발트해의 모든 항구에서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할 시간이 도래했으며, 출항시간이 임박해옴에 따라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도록 훈령을 내려달라는 것이었다. 나아가 로제스트벤스키는 러시

43) Там же. С. 18-19.

아의 재외공관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특히 경찰청장에게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해안과 발트해협에 대한 현지조사를 위해 해군성의 자금으로 비밀요원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로제스트벤스키의 요구는 해군성에 의해 즉각 수용되었다. 1904년 6월초, 흑해함대와 발트함대 사령관은 해군성의 경계태세 강화지시를 받았으며, 외무성 역시 해군성의 요청에 따라 베를린 주재 러시아 대사로 하여금 독일정부가 제2태평양함대의 기습을 목적으로한 일본인들의 입국을 저지해 주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아울러 이집트와 터키주재 러시아 공관원들은 외무성의 훈령에 따라 아덴과 포트-사이드에 일본인 선박 출현을 감시할 비밀정보망을 운용하게 되었다. 또한 외상 람스도르프는 코펜하겐, 스톡홀름, 런던주재 총영사 그리고 극동주재 러시아 영사들에게 일본인들의 동태를 철저히 감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1904년 7월초, 스톡홀름 주재 러시아 총영사 베레즈니코프(В.А.Березников)는 스웨덴 서부해안에 위치한 주요 항구들을 시찰하고 현지 부영사들로 하여금 일본인들이 출현할 경우 이를 즉각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44]

그러나 외무성의 이 같은 조치들은 부차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었고 제2함대의 안전을 담보하는 기본임무는 경찰청이 맡고 있었다. 경찰국 특수부 소속 6등관 가르팅과 헌병중령 트르제쟈크는 북부유럽과 흑해연안에서 일본의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망을 수립할 임무를 띠고 해당지역으로 파견되었다. 이들은 여타 공관원 및 무관들이 향유하던 공식 지위와 외교적 불가침권을 누리지 못한 채, 가짜 증명서를 이용하여 단신으로 현지에 파견되었으며 그들의 보고서에도 가르팅은 아르놀드(Арнольд), 트르제쟈크는 찌톱스키(А.К.Цитовский)라는 가명을 사용했다. 그들의 법적 지위는 해당국가와 러시아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규정되었으며, 우호국가에서 활동하더라도 국제적인 논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공개적인 활동은 불가능하였다. 이들의 활동무대는 러일전쟁 당시 중립을 표방한 국가들이었기 때

44) Там же. С.19.

문이었다. 그러나 중립을 표방한 프랑스의 경우 첩보 및 방첩분야에 있어서 러시아정부를 적극 지원했으나 터키는 엄격한 중립을 고수했다. 반면 중도적인 중립을 표방한 스웨덴의 경우, 참모부의 장교들은 러시아와 일본의 비밀요원들에게 동등하게 협력하였다. 따라서 러시아 방첩요원들의 해외활동은 프랑스와 덴마크 고위간부들의 비공식적인 지원과 현지 러시아 외교관들의 지원이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었다.

가르팅의 첩보임무가 부여된 지역은 발트해와 북해 그리고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의 해안지역이었다. 코펜하겐에 거점을 확보한 가르팅은 해당지역에 위치한 러시아 영사들의 지원하에 약 80여 곳의 해안감시구역을 설정하고 이를 아우르는 정보망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곳에는 약 100여 명의 현지주민들이 정보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아울러 그는 스웨덴 해운회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들로부터 9척의 선박을 용선하여, 1904년 8월 중순부터 10월 중반까지 덴마크와 스웨덴-노르웨이 해역을 감시하도록 하였다. 제2태평양함대가 통과할 무렵에는 감시선박의 숫자를 12척으로 증가시킴으로써 제2함대의 순항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었다. 더욱이 러시아 외교관들이 덴마크 정부부처의 지원을 확보함으로써 가르팅은 덴마크의 해군관리들로부터 덴마크 어부들이 발견한 수상한 선박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 또한 일본이 함대의 항로에 수뢰를 설치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가르팅은 통관화물에 대한 철저한 검색과 폭발물을 압수해 줄 것을 덴마크 외무성과 재무성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르팅을 긴장시킨 위협적인 문제들은 발트해협에 국적미상의 수뢰정이 수시로 출몰하고 있었고, 베를린 주재 일본 해군무관 다키가와가 사전예고도 없이 독일인 협력자들을 대동하고 이곳에 나타난 것이었다. 이들은 즉각 가르팅의 정보망에 포착되어 덴마크 관헌들에 의해 추방당했다.[45] 그러나 국적불명의 수뢰정이 수시로 출몰하고 있는 문제는 제2태평양함대의 순항이 결코 평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45) Там же. С.20.

수차례 연기되었던 제2태평양함대의 출항은 마침내 1904년 10월 2일에 이루어졌다. 함대는 알렉산드르 3세 항구로 불리던 리바븨(Либавы)항을 출항한 후, 철저한 경계태세하에 발트해협으로 진입하였다. 함대의 항로를 확보하기 위해 수뢰정과 소해정(掃海艇)이 전면에 배치되었고 장갑전함들이 이들을 뒤따랐다. 초계함들에게는 수상쩍은 선박이 출몰시 즉각 발포하라는 임무가 부여되었고 주력함대 역시 유사시에 대비한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출항 직전 장교들은 일본의 기습공격 위험성에 대해 사전에 교육받은 바 있었던 바, 출항 이후 함대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순항하게 되었다. 제2함대 승무원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마주오는 선박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이들을 예의주시하였고 해상의 어떠한 작은 물체라도 철저히 조사하였다고 한다.[46]

그러나 10월 7일, 가르팅이 관할하고 있던 지역을 무사히 통과한 함대는 그날밤 북해로 진입하면서 예상하던 최대의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수척의 국적불명 수뢰정들이 수송선 캄차트카호에 대한 기습공격을 감행하였던 것이다. 이에 신원미상의 수뢰정에 대한 함대의 대응사격이 이루어졌고 10분 뒤 수상쩍은 선박은 사라졌고 사격도 멈추었다. 그리고 함대는 제2차 공격을 우려하여 신속히 사고지역을 벗어났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도거뱅크에서 있었던 해전의 사상자가 영국인 어부들이었음이 판명되면서 러시아는 이제 영국과 일촉즉발의 전쟁위협에 봉착했던 것이다. 영국인 어부의 선박이 등록되어 있던 지명에 따라 굴스키 사건(Гулльский инцидент) 또는 도거뱅크(Dogger Bank) 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영국과의 개전위기로 몰고간 비극적인 사고였으나, 영국정부뿐만 아니라 1904년말~1905년초 파리에서 소집된 국제특별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도 진상파악이 되지 못한 채 미결과제로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47] 러시아정부 역시 10월 8~9일 밤에

46) Золотарев В.А., Козлов И.А.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 на 1904-1905 гг. Борьба на море. М., С. 157-158.

47) Грибовский В.Ю., Познахирев В.П. Вице-адмирал З.П.Рожественский . Спб. 1999. С.

발생한 이 사건에 일본군함이 가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대지 못했다. 굴스키 사건은, 러시아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영국의 선동행위였는지, 또는 파리위원회의 결론에 따르면 우연한 비극적인 사건이었는지, 아니면 러시아함대 승무원과 러시아정부의 주장대로 일본수뢰정이 가담한 결과였는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지만, 제2태평양함대의 극동파견을 둘러싼 러일간의 치열한 첩보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1904년 11월초, 러시아 경찰청장 로푸힌이 직접 파리로 출발한 것은 굴스키 사건을 둘러싼 진상파악을 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프랑스 대통령, 외무장관, 프랑스 비밀정보국장과 가진 일련의 비공식 회담과정에서 로불동맹의 범위 안에서 향후 러시아 비밀경찰에 대한 프랑스측의 지원의사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파리에서 경찰청요원들이 방첩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그리고 1904년 11월 중순, 가르팅은 그가 방첩임무를 맡은 지역에서 제2태평양함대가 무사히 통과함에 따라 자신의 정보원 일부를 현지 러시아 무관에게 인계하고 코펜하겐을 떠날 수 있었다.

한편, 제2태평양함대의 순항을 위한 방첩활동을 목적으로 콘스탄티노플에 거점을 확보하고 있던 트르제쟈크는 터키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현지 해군무관 슈반크(А.Л.Шванк)의 보고에 따르면, 술탄과 그의 측근들은 전적으로 친일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트르제쟈크는 1904년 6월부터 12월까지 콘스탄티노플에 머물면서 항상 술탄의 비밀경찰측의 방해공작을 받고 있었으며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받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터키에 체류하던 기간에 일본측의 어떠한 음모의 징조도 없었다. 이는 제2태평양함대에 포함된 흑해함대가 보스포러스와 다다넬스 해협을 통과할 때, 일본측의 기습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가 과장된 것이었음을 대변해 주고 있었다. 10월말 라들로프(О.Л.Ладлов) 해군대령의 지휘하에 수송선단이 흑해해협을 통과하여 무사히 지중해에 진입한 것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었다.[48]

187-190.

이 무렵 유럽을 돌아온 로제스트벤스키 함대는 극동으로의 이동경로에 따라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었다. 신형 장갑함들은 흘수(吃水)가 깊어 수에즈운하를 통과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가야만 했고, 나머지 전함들은 펠케르잠(Д.Г.Фелькерзам) 제독의 지휘하에 라들로프의 수송선단과 더불어 포트사이드(Port Said)로 향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펠케르잠 함대가 일본의 기습공격이 예상되는 수에즈운하를 무사히 통과하려는 계획의 실행 여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다.[49] 수에즈운하는 영국이 관할하고 있었으며 영국은 일본의 동맹국이었기 때문이었다. 요컨대 제2태평양함대의 극동파견 경로에 있어서 가장 통과하기 힘든 구간이 바로 수에즈운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 해군참모부는 이미 1904년 여름부터 함대의 무사통과를 위한 제반조치의 강구에 착수한 바 있었다. 참모부는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외무성과 협조하여 1904년 6월 하코다데 주재 러시아영사 게젠슈트롬(М.М.Геденштром)을 홍해의 주요 항구들로 파견할 수 있었다. 1904년 7월 20일, 현지를 시찰한 게젠슈트롬이 해군참모부에 보낸 보고서에서 수에즈운하의 통과가 극히 위험한 사안임을 지적함에 따라, 해군참모부와 외무성 그리고 경찰청은 공동으로 수에즈운하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이 계획에 따르면, 외교관련 사안들은 이집트주재 러시아 외교관 막시모프(П.В.Максимов)가 담당하며, 그를 지원하기 위해 터키주재 해군무관 슈반크가 현지로 파견되기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방첩활동을 담당한 경찰청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요원을 이용하고자한 바, 프랑스인 퇴역중령 모리스 라울이 그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에게는 운하관리국의 직원으로 들어간 후, 요트를 빌려 홍해와 지중해를 감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그리고 라울에게는 트르제쟈

48) Павлов Д.Б. Россий ская контрразведка в годы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 ны//Отечественная и стория, №1, С. 22.

49) Грибовский В.Ю., Познахирев В.П. Вице-адмирал З.П.Рожественский . Спб. 1999. С.198.

크의 휘하에 있던 현지사정에 정통한 정보원들을 이관하였다. 그리고 상술한 게젠슈트름은 지부티로 거점을 옮겨 홍해 남단을 감시하도록 하였다. 이 계획은 1904년 10월 2일 로제스트벤스키 함대가 출항한 당일 짜르에 의해 재가를 받았다.

이 계획에 따라 막시모프는 슈반크와 카이로로 돌아온 직후, 이집트 행정부의 사실상의 수장이었던 영국영사 크레머경(卿)과 함대 통과의 안전에 관한 일련의 회담을 가졌다. 불의의 사고로 인한 운하의 기능마비는 운하운영에 관여하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인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막시모프와 크레머간의 회담은 기대 밖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후자는 전자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선박이 통과할 때, 해상 및 육상에서 이들을 보호할 것이고 여타 선박들의 운하통과를 중지시키기로 약속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펠케르잠의 함대는 11월 11일 수에즈운하를 무사히 통과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측의 어떠한 음모도 포착되지 않았다. 이후 펠케르잠 함대는 12월 말로 예정되어 있던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와 합류하기 위해 인도양으로 항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50]

그 후에도 제2태평양함대는 동아시아주재 외무성 공관원들과 군사무관들이 전해 온 일본군함의 이동상황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입수하면서 안전하게 극동으로 항진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러시아함대는 1904년 겨울 방첩임무를 띠고 이곳으로 파견된 해군중령 폴리스(А.К.Полис), 외무성 관리 크리스티(Х.П.Кристи) 그리고 상해에서 동아시아 첩보업무를 총괄하던 전직 주한공사 파블로프(А.И.Павлов)의 정보원이었던 프랑스인 샤팡존의 방첩활동과 정보보고를 통해 안전을 담보할 수 있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경우, 현지의 네덜란드 총독부 관리들이 러시아 요원들에게 편의를 베풀기도 하였다. 그리고 1905년 2~4월까지 로제스트

50) Павлов Д.Б. Российская контрразведка в годы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Отечественная история, №1,С. 23.

벤스키 제독의 요청에 따라 파블로프와 데시노가 구입한 4척의 증기선이 해상에서 방첩활동을 전개했다.[51] 이는 50척의 함선으로 구성된 로제스트벤스키의 함대는 역사상 공해상에 집결한 최대규모의 함대 중의 하나였기 때문이었다.

제2태평양함대의 극동순항을 둘러싸고 전개된 러시아의 방첩활동은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 세계적 규모의 작전이었다. 그리고 이 작전에는 1904~5년 해외에서 활약한 러시아의 방첩요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제 도고 제독이 이끄는 일본함대와 치르게 될 최후의 승부는 로제스트벤스키 제독의 몫이었다.

한편 뻬쩨르부르그에서는 1905년 4월초, 짜르의 지시로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총제독의 주재하에 제3의 태평양함대 건설을 위한 논의를 위해 특별회의가 개최되고 있었다. 이 회의에는 외상 람스도르프, 재상 꼬콥쪼프, 육상 사하로프(В.В.Сахаров), 해상 아벨란, 극동총독 알렉세예프(Е.И.Алексеев), 감사원장 로브코(П.Л.Лобко), 국가위원회 경제국장 솔스키(Д.М.Сольский)가 참석하였으며, 신설될 함대의 규모와 건조장소를 확정하는 문제가 주요 의제였다. 이 회의에서 합의된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발트 및 태평양함대의 증강사업을 위해 총규모 5억 2,500만 루블의 자금을 매년 7,500만 루블씩 7개년에 걸쳐 해군성에 지원한다. ② 대형전함의 건조는 발트연안의 조선소와 외국업체가 전담하며 이곳에서 건조된 전함은 즉시 극동으로 파견한다는 것이었다.[52]

그러나 1904년도의 해군예산 9,650만 루블의 약 5.3배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투자될 예정이었던 이 건함계획은 로제스트벤스키(З.П.Рожественский) 제독이 이끄는 제2태평양함대가 쓰시마해전에서 사실상 전멸함에 따라 사업의 착수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무산되고 말았다. 쓰시마해전에서의 참

51) Там же.

52) *Шацилло К.Ф.* Русский империализм и развитие флота накануне перв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1906-1914 гг.). М., 1968. С. 50-52.

패소식을 전해들은 코꼽쪼프와 솔스키는 제3의 태평양함대 건설사업에 대한 기존입장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총제독에게 전달한 뒤, 이 건함사업을 재검토해 줄 것을 짜르에게 상신토록 요청하기에 이르렀다.[53] 그 결과 새로운 태평양함대를 건설하려는 계획은 좌절되었고 태평양의 제해권 확보를 위한 함대증강정책 역시 짜르체제의 종식과 더불어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5. 결 론

러일전쟁은 단순히 한반도와 만주를 둘러싼 러일 양국간의 전쟁이라기보다는 제국주의열강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세계적 규모의 전쟁이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대부분의 국민과 각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평양의 제독'으로 등장하고자한 니꼴라이 2세의 개인적인 야망이 개전의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짜르정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유럽, 아프리카, 인도양 그리고 동남아시아 해역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러시아의 제2태평양함대가 도고 제독이 이끄는 일본함대와 치른 쓰시마해전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되었다. 7개월에 걸쳐 18,000마일의 대장정을 떠난 제2태평양함대는 외형상 기울어가던 전세를 역전시키고 동아시아해역의 제해권을 장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나, 본질적으로는 로마노프왕조의 운명을 가늠할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 결과 러일전쟁에서의 패배는 짜르체제의 붕괴를 초래했고 혁명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했으며 궁극적으로 로마노프 황실의 몰락으로 귀결되었다. 레닌을 비롯한 볼세비키 혁명가들이 이 전쟁에서의 패배자는 러시아 국민이 아니라 무능한 짜르 자신이었다고 의미부여를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다.

---

53) Там же.

러시아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적극적인 동아시아정책과 태평양함대 증강 정책을 주도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니꼴라이 2세였다. 그는 뾰뜨르(Петр Ⅰ) 대제와 에까쩨리나 여제(Екатерина Ⅱ)가 발트해와 흑해로의 출구를 획득함으로써, 러시아를 유럽세계와 긴밀히 연계시켰던 것처럼 자신에게는 시베리아를 유럽 러시아와 밀접히 결부시켜야 할 사명이 부여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따라서 태평양함대 증강을 위한 방위비 지출의 증대는 국가경제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열강과의 군비경쟁을 야기시킴으로써 정부의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갈 위험성이 있다는 재무성의 반대의견은 묵살되고 말았던 것이다.

제2태평양함대의 극동파견은 일차적으로 위기에 처한 제1태평양함대를 구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1함대와 연합하여 동아시아해역에서 제해권을 장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개전 직후 승리를 확신하고 있던 짜르정부는 이를 위한 방책으로 일본에 대한 러시아함대의 수적인 우세를 확보하는 문제를 최우선의 과제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뻬쩨르부르그에서는 제2태평양함대를 극동으로 파견하기로 결정한 이후에도 제3의 태평양함대를 편성하기 위한 건함계획이 모색되고 있었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를 대비한 계획들이 마련되고 있었던 것이다.

유럽에서 극동으로 파견되는 제2태평양함대는 중립국과 적성국 해역을 통과해야만 하는 바, 이 지역에서 일본의 기습공격과 후방교란 작전을 돌파하여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는 문제가 제2태평양함대의 제1의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함대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측면지원을 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러시아의 방첩작전의 핵심이 되었다.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의 4대 방첩기구는 각각 독립적으로 활동하여 비효율적인 조직체계를 이루고 있었지만 제2태평양함대가 안전하게 극동까지 순항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하고 총괄하는 수상의 직위를 허용하지 않았던 전제적 짜르체제의 후진성이 제정러시아의 방첩조직체계 속에도 그대로 투영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에서 효율적이고 통

합된 정보기관의 등장은 짜르체제의 와해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었다.

그 결과 짜르를 비롯한 황실측근들의 전횡을 제한시킬 입헌체제를 수립한 러시아는 1907년부터 새로운 함대의 재건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착수하게 되었던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04. 3. 5, 심사완료일 : 2004. 4. 1)

주제어 : 러시아 제2태평양함대, 러일전쟁, 해군정책, 방첩작전, 전함건조

KCI

<ABSTRACT>

The Second Pacific Fleet of Russia and It's Counter-Intelligence Operations.

Choi, Dok-Kyu

The Russo-Japanese War began and ended with naval battles. This war which was started from the Che-mul-po naval battle finished with the defeat of Russia because of the complete destruction of the Russian Second squadron of Pacific Fleet at the Tsushima naval battle. It means that the main factor of the war lay on the competition of the naval construction between Russia and Japan. These two nations intended to take over the naval supremacy of the Pacific Ocean. In addition, there was an armament increase policy of Japan in the centre of this naval construction competition. Japan planned to invade the continent and hinder Russia's policy of going southward as well as Russia's extension policy of the Pacific Fleet.

The main reason of how Nicholas II was able to utilize all national resources and focus on the naval construction might be the structural contradiction of the industrialization policy of Russia which was a combination of capitalism with the tsar system. The industrialization of Russia started out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and it was based on supporting and maintaining the tsar system. Also, it had a very unique form, which was a combination with capitalism under the absolute political background. This means that it was very effective in promoting of economic policy run by nation. However, at the same time, it had a weakness The industrialization policy might be interfered by the tsar.

The industrialization policy run by the nation was on efficient way to catch up the economical gap between the advanced European countries with underdeveloped Russia in a short term period. However, at the same time, as progress of the industrialization continued, there were consistent possibilities of interference by the tsar who worried that the progress of industrialization could lead to the change of the political system. Furthermore, they tried to focus on Military expansion which was closely tied with their interest rather than economic development.

Thus, if they and power to control the industrialization policy, for the domestic they would try to find a way to develop the military industry for the expansion of military power. And for the foreign aspect, they would find more positive which was based on military expansion. The dispatch of the 2nd Pacific squadron was a result from Nicolas Jr's reckless idea. His idea was to gather all Russia's naval power to the East Asia in order to become an admiral. This was so that his personal dream could come true.

This policy containd risky aspects because if Nicholas II truly acknowledged the fact that his duty was mainly to secure the command of the Pacific ocean, he should have focused on the expansion of the Pacific squadron policy in order to rebuild the navy after losing the war with Japan. However, he actually abandoned the East Asia policy after the Russia-Japan war. This proved that the policy was risky and reckless. Thus, the answer for solving this kind of contradiction was the introduction of a policy that prohibited the arbitrariness of the tsar. The adaptation of constitutional monarchy was introduced as the expansion of revolution and defeat from the war with Japan.

Key Words : The Second squadron of Pacific Fleet of Russia, The Russo-Japanese war, Naval Policy, Counter-intelligence operation, Naval construction